

교육활동 침해 '강력 대응' 방침

도교육청, 교권보호·교원지원 계획 밝혀... 교권침해 중재지원단 운영·교사 소송비용 지원 등

전북도교육청이 이달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원, 연간 총10억원 한도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교원

의 상담·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며,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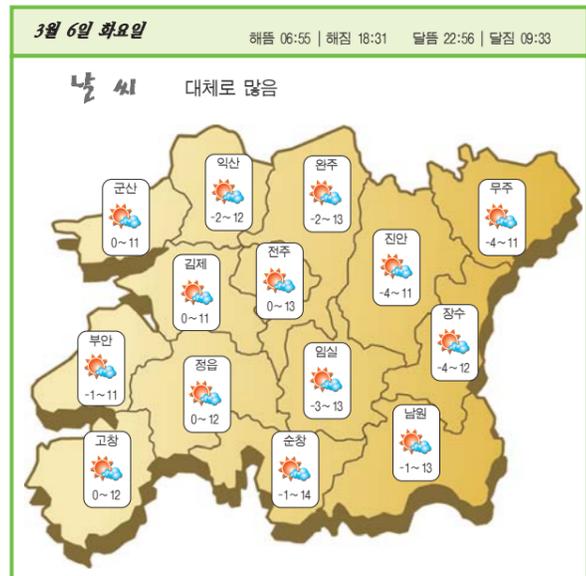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

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상담,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休)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교권보호와 교원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대,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김용재(국어교육과), 정영식(컴퓨터교육과), 송지환(체육교육과), 이동성(초등교육과)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장 및 교육연구실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및 기숙사사관, 기획실장 및 산학협력 단장 근무를 명했다.

또한, 박승배(초등교육과), 최경은(실과교육과), 오마리아(영어교육과) 교수를 도서관장 및 교육전신원장, 초등교육연구실장, 영재교육원장 및 평생교육원장 겸임으로 명했다.

한편, 김영태(영어교육과), 천호성(사회교육과), 부재울(초등교육과), 최병연(초등교육과) 교수를 연구교수로 임했으며, 최홍규(실과교육과)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였다.

/김민근 기자



사랑의 헌혈 전북농협 직원들이 5일 본부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 차량에서 '사랑의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농협 제공)

전주시, 작년 세외수입 2385억

전주시는 2017년도 세외수입을 결산한 결과 1년 전보다 100억원 늘어난 2385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일반회계 808억원, 공기입(상하수도) 특별회계 1413억원, 교통사업·의료보호 등의 기타특별회계 16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100억원이 늘어 징수율이 2.4% 증가, 체납액은 5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적극적으로 강력한 체납 관리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세외수입 안정화의 해'로 설정하고 결산 결과에 따른 취약한 부분을 보완, 수익자 부담의 수수료 및 사용자 등을 현실화하는 등 세입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행복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접수

전주시, 5일~9일까지 동네기획단에서... 심사 후 협의체별로 300만원씩 지원

전주시는 33개 전체 동에서 각 동별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행복한 동네 만들기와 민·관이 함께 이루어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2018년 찾아가는 동네복지 '행복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33개동에서 동네복지팀이 이끌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동네기획단'에서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후 내부심사를 거쳐 협의체별로 300만원씩 총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각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는 등 지역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동네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의 밑거름이 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동네기획단은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지역 내 복지기관과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협의체로 각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해 운영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저소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전북도교육청, 23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 지원 기준(중위소득 64%~68% 이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85명 계약직 정규회계직 전환

올 초 국립대 최초로 청소용역 근로자 118명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국 대학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3월 1일자로 또다시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북대는 새 학기가 본격 시작한 3월 5일 오전 11시 새롭게 정규직(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85명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남호 총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새 가족이 된 이들에게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로써 전북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정규직 전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 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200명 이상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청소용역 선생님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이어진 이번 결정은 직업 안정성 개선과 사회 양극화 해결,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